

발행인: 엄재일

편집인: 이한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4년 9월 11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10-745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한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51

e-mail: hanjung@skku.edu

## 1. 월례 논문 발표회 및 강독회

- ▶ 9월 월례 논문 발표회가 9월 20일 숙명여대 진리관 306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에는 박유경 선생님(U. of Delaware), 임서현 선생님(서울대)과 정영한 선생님(인하공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와 일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후 식사에 이어 강독회가 열립니다. 이번 강독회는 임동식 선생님(홍익대)께서 'Even and NPI'를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강독 논문은 본 소식지와 함께 배포해 드리며, 강독회와 월례회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0월 월례회는 '언어와 통계'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계획 중인 특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재웅(고려대): 언어와 통계

김미란·홍정하(고려대): 군집화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초-중성 간 음소배열 제약 분석

이한정(성균관대): 문법적 변이 연구를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효필(서울대): TBA

- ▶ 월례회 또는 강독회에서 다루고자 희망하시는 주제 또는 논문이 있거나, 발표를 희망하시거나 발표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면 연구이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발표회: 유은정 (ejyoo@snu.ac.kr), 전영철 (ycjun@snu.ac.kr), 양정석 (yjsyang@yonsei.ac.kr), 최승권 (choisk@etri.re.kr)

강독회: 김종복 (jongbokkim@gmail.com), 위혜경 (hkwee@dankook.ac.kr), 정소우 (swchung@sungshin.ac.kr)

## 2.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는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논문을 게재할 분들은 소정의 논문투고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와 심사용 논문(영문 요약 필수 포함)을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사용 논문은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 LaTeX 등 어떠한 조판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며, 스타일은 자유입니다. 그 외 논문 투고나 심사에 대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를 원하시면 발간일 기준 적어도 75일 이전에 투고를 하셔야 합니다. 발간 일정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호수의 [언어

와 정보]에 게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제18권 2호 (2014년 12월 31일 발간): 2014년 10월 15일 원고 마감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60,000원 (3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3인 심사, 20쪽 분량 기준):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30,000원)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30,000원)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80,000원)

- 참고

1)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고신청서 작성 (투고자, 서식은 홈페이지) -> [2] 투고 (투고자) -> [3] 심사료 입금 (투고자) -> [4] 심사 의뢰\*3인 (편집위원회) -> [5] 심사 결과 취합 (편집위원회) -> [6]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 -> (게재 확정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게재 불가인 경우 [6]에서 종료) -> [7] 수정 보완요구서 (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이행확인서 (투고자) -> [9] 게재료 납부 (투고자) -> [10] 수정 논문 제출 (투고자) -> [11] LaTeX 조판 작업 (편집위원회) -> [12] 교정\*3회 (투고자) -> [13] 출판 (편집위원회/출판사)

▶ 논문 투고나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 (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월례 발표회장에서 또는 아래의 학회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2-598367, 예금주: 김미숙)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 회원님들께서는 올해부터는 일반회원이 되어 4만원씩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명단 참조)**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총무이사 (hanjung@skku.edu)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4. 2014년도 회비 납부 현황

-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종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은주(오사카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웅(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2012년]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랑혜운(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SKT),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 정회원: 송상헌(고려대), 엄재일(홍익대), 이정민(서울대), 이주익(경북대), 장석진(서울대), 홍민표(명지대)
- ▶ 준회원: 윤혜림(홍익대)
-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총무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 월례회/강독회 장소 오시는 길

- ▶ 이번 월례회와 강독회는 숙명여대 진리관 306호에서 열립니다.
- ▶ 숙명여대 제1캠퍼스 오시는 길: 4호선 숙대입구 역 10번 출구에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왼쪽으로 돌아와 갈월지하도를 건너 5분 정도 도보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제1캠퍼스 정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버스와 자가운전으로 오시는 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버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1>  
자가운전: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 ▶ 주차: 정문 입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할인권을 (4시간 주차 2천원) 총무이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 ▶ 제1캠퍼스 진리관은 아래 지도에서 4번 건물입니다 (10번이 정문).
- ▶ 월례회 후 점심식사는 숙명여대 근처 ‘더함’ 한정식(02-707-3692)에서 있습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14학년도 9월 월례회 및 강독회 일정표**  
**월례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306호    일시: 9월 20일 9:30 – 12:00**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30-10:30	기획	박유경 (U. of Delaware)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Biscuit Conditionals)	유은정 (서울대)
10:30-11:10	일반	임서현 (서울대)	중점(headedness)과 돌출(salience): 상호작용 동사부류를 (interaction verb class) 중심으로	
Coffee Break (10분)				
11:20-12:00	일반	정영한 (인하공전)	The Sufficient Informativeness Conditions for “Even”	

**강독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306호    일시: 9월 20일 14:00 – 16:00**  
**주제: *Even* and NPI**

발표자	임동식 (홍익대)
논문	Nakanishi, Kimiko. 2012. The scope of <i>even</i> and quantifier raising. <i>Natural Language Semantics</i> 20: 115-136. Crnič, Luka. 2014. Non-monotonicity in NPI licensing. <i>Natural Language Semantics</i> 22: 217-169.

## 2014년 9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Biscuit Conditionals)

박유경 (University of Delaware)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은 영어에 비하여 그 사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모국어화자들의 문법성 판단이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문법성 판단이 왜 이처럼 예측불가인지, 그리고 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을 두 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대하여 의미론적 특성을 설명한다. 먼저, 첫번째 유형(Type 1)에서는, 선행절이 대화상대자(또는 청자)가 어떤 의사결정문제(decision problem)에 직면한 상황을 제공하고 후행절은 그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게끔 돕는 정보를 제공한다. 선행절이 얼마나 분명한 의사결정문제를 제공하느냐, 그리고 후행절의 정보가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청자를 인도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문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Type 1 문장들에 대한 문법성 판단이 예측불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Type 1의 선행절에 일종의 화용적으로 재구성된 (또는 보충,강화된) 해법모색질문 (Solution-seeking question)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Type 2)에서는, 선행절에서 '알려주다'나 '약속하다' 등과 같은 화행표현이 나타나고, 후행절에서는 그 화행표현에 대응하는 화행을 실행에 옮긴다. 이를 토대로, 선행절이 Searle (1969)의 본질적 조건(essential condition)과 같은 일종의 화행조건을 겹으로 드러냄으로써 후행절의 '화행'을 꾸미는 것으로 분석한다.

### 중점(Headedness) 과 돌출(Salience): 상호작용동사부류 (Interaction Verb Class)를 중심으로

임서현 (서울대)

이 발표에서는 생성 어휘부 이론의 중점 (headedness)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Im (2013, 2014)에서는 어휘적 추론 (Lexical inference) 관계가 포함되도록 확대된 사건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사건구조는 양분 구조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하위사건들이 나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을 설정하는 문제가 양분구조일 때처럼 간단하지 않다. 더구나 Caudal (2005) 등의 연구에서는 중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돌출 (salience)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호작용 동사 부류 (Interaction Verb Class)를 중심으로 하여 중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 The Sufficient Informativeness Conditions for "Even"

정영환 (인하공전)

There has been heated debate on the felicity conditions for the English focus particle “even.” The present study will review three previous approaches—namely, the existential account, the universal account, and the scalar account—and some of their drawbacks will be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will propose the Sufficient Informativeness Conditions (SIC) for “even,” a modified version of the scalar account. It will be compared with the three approaches, and it will prove to be successful in dealing with some of their problems. In addition, this paper will discuss pragmatic constraints on the implicature of “even.” The present study will conclude with some comments on the so-called comparative-intensifying use of “even.”